

# 학생들에게 학교도서관은 있는가

전담 부처없이 운영방치... 실질적인 교육의 장 이뤄야

허병두

시인·송문고 국어교사

학교 도서관이 없다. 물론 저울로 달아 사들여온 덩핑 책들의 창고, 밤늦게 학생들을 잠아 놓고 억지로 자율학습(?)을 시키는 자습실, 수능시험 대비를 위한 대여점 노릇을 하고 있는 학교도서관은 많다. 하지만, 그 무한한 교육적 의의를 진정으로 구현하고 있는 학교도서관은 유감스럽게도 이 땅에 한 곳도 없다.

## 학교도서관 없는 우리 교육

민기 힘들다면 어느 학교든지 가서 학생들에게 물어보라. 학교도서관은 어디 있는가. 대개는 아주 애매한 표정을 지을 것이고, 또 몇몇은 아주 당당히 앞서의 창고와 자습실, 대여점들을 가리킬 것이다. 다시, 이 땅의 교육을 총괄하고 있는 교육부에 확인해보라. 복잡한 언어의 미로 속을 헤매다가 결국은 교육부 안에 학교도서관을 소관하는 전담 부처가 없다는 당혹스러운 대답을 듣게 될 것이다.

실제로 정부 조직의 차원에서 학교도서관은 실종된 상태다. 모든 도서관의 소속과 운영이 문화체육부에 속해 있으나, 학교도서관과 대학도서관, 그리고 각 시·도 교육청 산하의 공공도서관은 특성상 교육부에 속해 있다. 이 가운데 유독 학교도서관만은 운영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물론 이렇게 된 데는 나름의 사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어떤 이유에서든지 학교도서관이 철저히 방치되고 있는 현실을 옹호할 수는 없다. 1만불의 국민소득과 세계 11위의 경제교역을 자랑하고 있는 이 나라에서 학교도서관이 교육의 장으로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한, 21세기를 위한 우리 교육의 앞날은 그리 낙관할 수 없다.

학교 교육은 교실과 학교도서관, 운동장이라는 세가지 교육공간이 상호 유기적으로 수행되어 그 목표를 달성한다. 그러나, 이 간단한 진리가 뿌리내리기 어려웠던 것이 우리 현실이다.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 속에서 운동장 없는 학교가 논의되었는가 하면, 학교 도서관은 있으나마나한 맹장 정도로 취급해 왔다. 최근의 무성한 교육개혁 논의도 교실 중심의 사고를 얼마나 벗어났는지 의심스럽다.

그러나 생각해 보라. 다양한 개성의 아이

학교도서관이 없다. 수능시험

대비를 위한 대여점 노릇을 하는 곳은

많지만, 무한한 교육적 의의를

진정으로 구현하고 있는

학교도서관은 이 땅에 한곳도 없다.

학교도서관은 확실한 독서활동의

장이며 학습과 레크리에이션의

공간이다. 21세기를 살아갈 우리

2세대에게 그곳은 가장

기본적인 교육 인프라이다.

들이 교실이라는 공간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공동체적 선을 위한 덕목을 익힐 수 있을까. 꼼짝도 못하는 부동의 자세에서, 그것도 5,60명 이상의 학생들이 비좁은 공간에 갇혀 교과서와 칠판, 공책으로 이어지는 시선으로 얼마나 창의적인 사고를 키울 수 있을까. 교실만으로 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편협한 고정관념에 지나지 않는다.

## 교육적 기능에 관심을 가져야

학교도서관은 '지금, 여기'의 우리 교육에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하다. 우선 전통적인 시각에서만 보더라도, 학교도서관은 가장 확실한 독서 활동의 장(場)이다. 학급 문고나 운동 형태와 같은 교실 중심 독서지도는, 적절한 유·무형의 환경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도서관 중심의 독서 지도의 토대로 갖추어져야 비로소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학교도서관은 그 자체로 훌륭한 학습 활동의 장이다. 이를테면, 자유로우면서도 편안한 공간적 특성은 학생들에게 교실과 다른 분위기 속에서 생각하고 느끼게 하는 역동적 요인이 된다.

자연스럽게 현대의 학교도서관은 레크리에이션의 장으로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 즉, 주체적인 삶을 즐겁게 설계하고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삶의 순간마다 새로운 출발을 위한 재충전(recreation)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학교도서관은 각



학교도서관은 정보화시대에 가장 기본적인 교육 인프라이다.

종 자료들을 갖춘 시청각실, 정기 간행물실과 휴게실, 토론실 등을 충분히 활용하여 학생 개개인이 삶을 언제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공간이다.

여기에 청소년들을 각종 비행에서 예방, 보호, 치료할 수 있는 장으로서 학교도서관의 기능 또한 빼놓을 수 없다. 아무리 보잘 것 없는 학교도서관이라도 그 중요성을 이해하고 운영한다면, 인격을 함양하고 전인교육과 평생교육의 틀을 잡는 장으로 충분히 의미를 가질 수 있다.

## 학교도서관은 정보화의 인프라

학교도서관은 정보화 시대의 가장 기본적인 교육 인프라이다. 정보화 시대의 학교도서관은 교실 수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와 정보를 확보·이용토록 하며, 학생 개개인에게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 정리, 가공하는 능력을 키워 줄 수 있다. 정보 활용능력(information power)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능력은 21세기를 살아갈 우리 2세대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선진국의 학교도서관은 그 존재 여부조차 의심받는 우리의 경우와는 달리 훌륭하게 교육적인 의의를 구현해 왔다. 나름대로 관련 자료들을 검토해보면, 학교도서관 제반 요소들은 대체로 선진국보다 30여년 정도는 뒤떨어져 있지 않은가 싶다. 따라서 기존의 산업사회에서 우리의 학교도서관을 선진국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막대한 경제적 투자와 시간이 소요되는 부

담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최근 컴퓨터와 커뮤니케이션 기술로 대표되는 정보화 사회의 도래는 산업화에 늦어 온갖 고통을 겪었던 우리들에게 절호의 기회를 주고 있다. 즉, 우리의 학교도서관 역시 정보화의 물결을 적절히 활용하면 비약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전자도서관 구축은 좋은 예이다. 종래의 활자매체 중심으로 마련된 기존 도서관의 성과를 무용지물로 만들며, 디지털 처리된 화일들로 데이터 베이스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새로운 형태의 도서관 발전 양상은 우리의 학교도서관을 살리는 데도 많은 암시를 주고 있다.

멀지 않은 장래에 학교도서관은 데이터 베이스와 컴퓨터 통신, 멀티 미디어를 갖춘 '학교도서관 다매체센터 (school library multi-media center)'로 확대 발전할 것이다. 나아가 정보화 사회를 이끌어 나갈 건전한 심성을 닦는 전인교육의 장으로서, 또한 필요한 전문능력을 기르는 실질적인 훈련의 장으로서 필연적으로 변모해갈 것이다.

문제는 누가 더 빨리 정보화의 물결을 활용하여, 좀더 체계적인 정보화 사회의 인프라를 마련하느냐이다. 정보화 시대의 우리 교육은 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개혁과 실천을 적극 요구하고 있다. 21세기를 불과 5년 남긴 시점에서 진정한 교육을 꿈꾸어 본다. ❖